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변인 연구 :기독교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교성적,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백은령·손병덕
(총신대)

I.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보건복지부의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김미숙외, 2013). 특히 과중한 학업스트레스와 진로문제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갈등은 자살, 학교폭력, 학업중단, 흡연 및 음주, 범죄 등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13-15세 청소년의 우울증 유병률은 최대 19.6%에 달한다(Park & Kim, 2011). 우리나라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한바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엄유식 외, 2016).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으며 자살충동 경험 비율도 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심리적 상태나 행복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전후 시기인 아동기나 청년기에 비해 신체적 성장과 심리·사회적 성장의 지체현상이 나타나 정서적으로 불안, 고독, 공허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강상경, 2011). 더욱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입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삶의 만족감이 낮아질 수 있으나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의미 있게 높다는 점은 주지해야 할 바다.

이처럼 정신적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독교 청소년들 역시 학교와 가정, 그리고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도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영적 침체기를 맞게 되는 것은(오윤선, 2008) 물론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청소년 차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이자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터전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양육과 성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교회의 한계를 드러내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기독교 청소년에 비해 기독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는 하였으나(조성돈, 2014) 기독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를 규명하는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바가 없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와 더불어 다수 연구들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주목하고 있지만(신미 외, 2010; 박병선·배성우, 2012; 석말숙·구용근, 2015; 최유선·손은령, 2015) 기독교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였으며 어떠한 변인들이 기독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영향변인 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학술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바가 없다. 이성혜와 전미경(2007)의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학교성적, 신앙생활 관련 변인들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교회와 우리사회의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특히 신앙생활 관련 변인들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기독교 및 교회의 청소년 관련 교육 및 다양한 활동에의 함의 발견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교회 및 기독교계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청소년들이 좀 더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대한 고민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은 하나님의 축복의 날에 부모 및 사회일반과 그 즐거움을 같이 해야 할 존재이다(신16:4). 또한 신자로서 청소년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다(손병덕, 2008).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기독교청소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 5차년도 원자료(2014)중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자들이 이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아동·청소년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국적인 단위의 조사일뿐만 아니라 표본학교 추출에 있어서 확률비례추출법에 의거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이 타 조사에 비해 적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II. 문헌고찰

1. 기독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 가를 스스로 인지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주관적 만족감을 의미하며 행복감, 안녕감 등과 혼용되기도 한다

(조성희·박소영, 2015; Diener, 1984). 삶의 만족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만족을 느끼는 사람의 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높은 만족감을 얻기 원하는데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구현영 외, 2006).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삶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박효정·연은경, 2003) 대부분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와 삶에 대한 낮은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현철·최성보, 2012; 김소영·윤기봉, 2016). 이와 같이 청소년의 낮은 삶의 만족도의 심각성에 기인하여 이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박병선·배성우, 2012; 석말숙·구용근, 2015; 최유선·손은령, 2015; 김소영·윤기봉, 2016).

그러나 교회의 다음세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기독교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들의 행복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감에 어떠한 변인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 신앙생활과 삶의 만족도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불어 기독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회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성혜와 전미경(2006)이 개신교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종교활동과 생활만족도간의 전반적인 경향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2. 기독교 청소년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기독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바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한 연구들을 포함하여 검토한 결과, 삶의 만족은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복잡한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매우 다양하였다. 지금까지의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관련된 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내적 요인, 가정환경, 사회적 관계, 성적 및 학교생활 등을 영향요인으로 포함하였다(박병선·배성우, 2012; 조성연 외, 2011; 조진만 외, 2012; 최유선·손은령, 2015; Cheng & Furnham, 2004; Chung et al., 2015; Piquart & Sorensen, 2000).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변인과 함께 청소년 시기가 학령기임을 고려하여 학교성적을 포함하였으며,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생활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삶의 만족도가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Diner & Fujita, 1995)가 있는 반면 청소년에 있어서 연령과 성별, 소득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학교계열, 학년, 성적, 종교, 가족의 월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구현영 외, 2006). 특히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데 박효정과 연은경(2003)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Kousha & Mohseni, 2000)와 차이가 있으며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남자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친구와 여학생은 가족과 있을 때 더 행복하다는 결과도 있었다(김신영과 백혜정, 2008). 한편 남학생은 학생에 비해 자율성, 개인적 성장, 인생의 목표를 보다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보는 반면 여학생은 대인관계를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보았다(김명소 외, 2003). 소득수준이나 가정형편이 삶의 만족도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를 연구하였으며(박효정·연은경, 2003; 김혜원·홍미애, 2007)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의철·박영신, 2004).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관련이 있는 부모의 학력과 근로여부도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견해(이성혜·전미경, 2006)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안녕감을 느낀다는 보고가 있다(전신현, 1996).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나이, 부모의 학력 및 근로여부, 주관적 가정형편 및 가구 평균소득을 설정하였다.

청소년기 시기가 학령기라는 점과 학업성적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성적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의 학교성적은 삶의 만족의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으며(박영신 외, 1999) 최유선과 손은령(2015)의 연구에서도 연구학업성취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신앙활동은 청소년에게 직·간접 영향을 미쳐 청소년들의 원만한 인격을 개발하고 풍부한 정서를 함양시킴으로서 인생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고 자신의 생활만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성혜·전미경, 2006). 청소년들에게 종교가 있는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류명수, 2004). 이성혜와 전미경(2006)은 개신교 청소년의 종교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신앙활동의 양보다 내용이나 동기와 목적, 종교활동에 대한 만족정도가 생활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바 있다. 백옥경(2010)은 기독교 신앙이 청소년들을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믿음에 의해 안정적인 심리적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유용하다고 설명한바 있으며 이대원(2013)의 연구에서는 교회출석 유무와 한달 평균 교회 출석 횟수가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12개 특별시·광역시·도별로 지역별 층화를 실행하여 각 지역별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수에 비례한 지역별 목표 표본수를 할당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여 전국단위 표준 Sampling을 실시, 추적 조사한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KCYP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포함된 5차년도 자료(고등학교 2학년)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1차년도 조사 당시 2,351명이었으나 5차년도 자료 중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청소년만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학생 293명(50.1%), 여학생 292명(49.9%)으로 확인되었다.

2. 조사도구

1)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문항은 김신영 외(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수정 보완하여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의 단일 요인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이는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채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역채점 하였고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계수는 $\alpha = .811$ 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독립변인에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나이, 성별, 부친 학력, 모친 학력, 부친 근로여부, 모친 근로여부, 경제적 수준), 학교성적, 신앙생활을 포함하였으며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독립변인 측정방법

	측정방법
성별	1=남자, 2=여자
나이	만 나이
부친 학력	1=중졸이하, 2=고졸, 3=전문대 졸, 4=대졸, 5=대학원졸
모친 학력	1=중졸이하, 2=고졸, 3=전문대 졸, 4=대졸, 5=대학원졸
부친 근로여부	1=일을 하고 있다, 2=일을 하고 있지 않다
모친 근로여부	1=일을 하고 있다, 2=일을 하고 있지 않다
주관적 가정형편 (경제 수준)	1=매우 못 사는 편, 2=못 사는 편, 3=약간 못 사는 편, 4=보통수준, 5=약간 잘 사는 편, 6=잘 사는 편, 7=매우 잘 사는 편

가구 평균소득	연 만원
학교성적	국·영·수 성적 주관적 평가 합산 각 과목 1=매우 못했다, 2=못한 편이다, 3=보통이다, 4=잘한 편이다, 5=매우 잘했다
교회 방문주기	0=종교는 있으나 가지 않는다, 1=일 년에 한번, 2=한 달에 한번, 3=일주일에 한번
교회 방문빈도(회)	주 당 방문회수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나이는 만 14세 13명(2.2%), 만 15세(97.8%)이었고, 평균 만 14.98세(SD=.148)였다. 성별은 남자가 293명(50.1%), 여자가 292명(49.9%)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다. 부친학력은 대졸 210명(38.3%), 고졸이 190명(34.7%)이었고 모친학력은 대졸 185명(33.4%), 고졸 211명(38.1%)로 부친의 학력이 모친의 학력보다 약간 높았다. 근로여부에 관하여 부친이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11명(2.0%)에 불과한 반면에, 모친은 182명(33.0%)이 근로를 하고 있지 않아 모친의 비 근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주관적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보통이하(매우 못하는 편, 못하는 편, 약간 못 사는 편)로 인식하는 경우가 20명(3.5%)에 불과하였고, 잘 산다고 인식하는 경우가(약간 잘 사는 편, 잘 사는 편, 매우 잘사는 편) 357명(61.0%)로 절반 이상 학생들이 잘 살고 있다고 가정형편을 인식하였다. 실제로 전체 연구대상의 가구 평균소득이 4999.88만원(SD=2595.681)에 달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585명)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나이(만)	14세	13	2.2
	15세	572	97.8

성별	남자	293	50.1
	여자	292	49.9
부친 학력	중졸 이하	11	2.0
	고졸	190	34.7
	전문대 졸	85	15.5
	대졸	210	38.3
	대학원 졸	52	9.5
모친 학력	중졸 이하	6	1.1
	고졸	211	38.1
	전문대 졸	127	22.9
	대졸	185	33.4
	대학원 졸	25	4.5
부친 근로여부	일을 하고 있다	534	98.0
	일을 하고 있지 않다	11	2.0
모친 근로여부	일을 하고 있다	370	67.0
	일을 하고 있지 않다	182	33.0
주관적 가정형편 (경제 수준)	매우 못 사는 편	1	.2
	못 사는 편	4	.7
	약간 못 사는 편	15	2.6
	보통 수준	208	35.6
	약간 잘 사는 편	103	17.6
	잘 사는 편	185	31.6
	매우 잘 사는 편	69	11.8
가구 평균소득		4999.88만원(SD=2595.681)	

2. 연구대상자의 학교성적과 신앙생활정도

연구대상자들의 학교성적과 신앙생활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과목별 주관적 평가는 국어의 경우 잘하는 편(38.3%), 수학의 경우는 못하는 편(37.8%), 영어의 경우는 못하는 편(34.9%)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회 방문빈도는 일주일마다 간다는 응답이 76.2%로 가장 많았고 교회 방문 횟수는 주 1회가 73.8%에 달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학교성적과 신앙생활정도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과목별 주관적 평가(국어)	매우 잘했다	56	11.8
	잘한 편이다	131	27.5
	보통이다	169	35.5
	못한 편이다	90	18.9
	매우 못했다	30	6.3
과목별 주관적 평가(수학)	매우 잘했다	60	12.6
	잘한 편이다	100	20.9
	보통이다	137	28.7

	못한 편이다	111	23.2
	매우 못했다	70	14.6
과목별 주관적 평가(영어)	매우 잘했다	57	11.9
	잘한 편이다	109	22.8
	보통이다	146	30.5
	못한 편이다	89	18.6
	매우 못했다	78	16.3
교회 방문빈도 (방문주기)	종교는 있으나 가지 않는다	88	18.0
	일주일에	372	76.2
	한 달에	20	4.1
	일 년에	8	1.6
교회 방문 횟수 (주 당)	1	295	73.8
	2	66	16.5
	3	23	5.8
	4	9	2.3
	5	1	.3
	7	2	.5
	10	4	1.0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303$, $p<.05$). 모친이 비근로하는 경우가 근로하는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386$, $p<.05$). 여기서 주지할 결과는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으로 기독교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4>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차이

특성		N	삶의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t	p
성별	남자	293	4.49	1.598	-3.303	.015
	여자	292	4.97	1.866		
종교	기독교	488	5.98	1.763	-.1025	.736
	비기독교	1582	5.89	1.779		
부친 근로여부	비근로	48	6.15	1.774	1.008	.563
	근로	1852	5.89	1.763		
모친	비근로	653	5.82	1.883	-1.386	.023

근로여부	근로	1281	5.94	1.726		
------	----	------	------	-------	--	--

4. 학교성적과 신앙생활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에 앞서 실시한 VIF지수와 Durbin-Watson 계수분석 결과는 VIF 지수가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학교성적과 신앙생활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2단계에서는 학교성적을 추가하였고, 3단계에서는 신앙생활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주관적 가정형편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eta=.211, p<.001$), 주관적 가정형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명력은 5.30%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인인 학교성적(국·영·수 성적합산)을 투입한 모델 2는 F값이 4.533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했고, 설명력은 6.2%로 증가하였으며, 주관적 가정형편은 영향력을 유지하면서($\beta=.191, p<.001$), 학교성적이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beta=.115, p<.01$).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인 변인과 학교성적을 통제된 상태에서 신앙생활 관련 두변인 즉 ‘교회 방문주기’와 ‘교회 방문빈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주관적 가정형편($\beta=.193, p<.001$)과 학교성적($\beta=.115, p<.01$)은 영향력을 유지한 반면에 추가한 신앙생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학교성적과 신앙생활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t	B	β	t	B	β	t	
인구 사회 학적 변인	연령	.157	.014	.307	.149	.013	.292	.141	.012	.276
	성별	.240	.070	1.549	.263	.077	1.705	.272	.079	1.756
	부친학력	.160	.099	1.646	.182	.113	1.879	.179	.111	1.833
	모친학력	-.04	-.02	-.417	-.02	-.01	-.275	-.03	-.01	-.304
		5	5		9	6		2	8	
	부친근로	-.13	-.01	-.251	-.24	-.02	-.465	-.26	-.02	-.505
		1	1		2	1		3	3	
	모친근로	-.09	-.02	-.586	-.04	-.01	-.248	-.03	-.01	-.231
	6	7		1	1		8	1		
연간소득	-.56	-.08	-1.636	-.50	-.07	-1.486	-.52	-.07	-1.519	
	2	2		9	4		3	6		
주관적 가정형편	.316	.211	4.536***	.286	.191	4.064***	.289	.193	4.097***	
학교 성적	국·영·수 성적 주 관적 평가 합산			.092	.115	2.435*	.091	.115	2.424*	
신앙 생활	교회 방문주기						.005	.001	.024	
	교회 방문빈도(회)						-.05	-.03	-.783	
							6	9		
F	4.312***			4.533***			3.771***			
Adjusted R ²	.053			.062			.060			

= $p<.01$, *= $p<.001$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독교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학교성적, 신앙생활 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 주목할 점은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앙생활이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고 심리적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유용하다면(백옥경, 2010)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어야 할 것이나 분석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다음으로 여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303, p<.05$).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이대원(2013)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모친이 비근로하는 경우가 근로하는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386, p<.05$). 마지막으로 기독교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학교성적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관련 두변인 즉 '교회 방문주기'와 '교회 방문빈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주관적 가정형편($\beta=.193, p<.001$)과 학교성적($\beta=.115, p<.01$)은 영향력을 유지한 반면에 추가한 신앙생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76.2%에 달하고 주1회 교회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신앙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73.8%에 달함에도 신앙생활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점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내지는 교회활동을 계획하고 접근함에 있어서 남녀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맞벌이 가정 청소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독교 청소년의 주관적 가정형편과 학교성적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감안할 때 교회에서 특별히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교회는 청소년의 신앙교육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 관심을 쏟고 한명 한명의 개별적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관심과 지지, 격려와 함께 이들의 신앙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업상의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교회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교회 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사회조직들과 연계하여 밀착적인 사회적 지원과 신앙교육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회에는 사회복지전공 사역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기 힘든 작은 교회의 경우 교역자들이 사회복지적인 관점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보다는 또래집단을 동일시하고 선호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영향은 청소년에게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부모의 종교활동 참여시간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이성혜·전미경, 2006)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회의 청소년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부모의 참여와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에 대해서 좀더 이해하고 민감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가 청소년과 부모사이의 중재자 내지는 청소년의 옹호자 혹은 대변자의 역할을 일정부분 감당할 필요가 있다.

넷째, 또래 지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흥미롭고 다양한 신앙 및 교회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교회학교 활동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교회에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지만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좀더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가령 소집단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안정감을 느낄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통한 신앙지도를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특성에 맞는 신앙활동의 개발과 학교나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맞는 건전한 놀이문화나 취미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이성혜·전미경, 2006).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목회자 및 교회학교 교사들이 청소년기의 특성과 발달과업 등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을 가지고 다양한 개입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이들이 청소년들의 신앙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기독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도를 강구할 때 비로소 기독 청소년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간 기독교와 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기독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과 그에 대한 만족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여 기독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차자료분석으로 인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횡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적 연구를 진행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이는 종교변인이 포함된 전국단위의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향후 기독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였다. 또한 이차자료분석의 한계로 교회 방문빈도와 교회 방문횟수만을 분석함으로써 신앙활동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국의 기독 청소년의 다양한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신앙정도 등의 질적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 2013, 『아동종합실

- 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상경, 20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
- 구현영·박현숙·장은희, 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151-158.
- 류명수, 2004, 「청소년의 교회활동참여와 도덕성발달수준위 관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김의철·김영희·민병기, 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57-76.
- 석말숙, 구용근, 2015, “가족요인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55-74.
- 손병덕, 2008, “교회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이 심리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논총, 28:347-366.
- 신미·전성희·유미숙 (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염유식·김경미·이승원, 2016, 『2016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오윤선, 2008, “청소년 발달특성 문제에 관한 기독교 영성과 상담심리의 통합적 접근”, 복음과 상담, 11: 209-236.
- 이대원, 2013, 『청소년의 교회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시 소재 기독교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신현, 1996,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 63-82.
- 조성돈, 2014, “청소년, 그들의 신앙과 세계”, 『한국교회 10년을 준비한다』세미나자료집.
- 조성연·김혜원·김민, 2011,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9(3), 87-98.
- 조진만·강정환·이병규, 2012, “가족구조와 친구연결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논집, 43(1), 47-71.
- 최유선·손은령,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33-247.
- Cheng, H., & Furnham, A., 2004,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self-esteem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1): 1-21.
- Chung, G. H., 이상균, 유조안, 2015, “청소년들은 어떤 날 더 행복한가?: 부모와의 친밀감이 일상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가구소득과 학교 급에 따른 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3-23.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542-543.
- Park, J. H. & Kim, K. W., 2011, "A review of the epidemiology of depression in Korea", *Journal of Korea Medical Association*, 54, 362-369.
- Kousha, M., & Mohseni, N., 2000, "Are Iranians happ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2(3): 259-289.
- Pinquart, M., & Sorensen, S., 2000, "Influences of socioeconomic status, social network, and competence on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A meta-analysis", *Psychology and Aging*, 15, 187-224.